

## 『靈樞·動輸』의 肺胃腎 관계에 대한 考察 - 『黃帝內經』의 내용을 중심으로 -

<sup>1</sup>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教授

<sup>2</sup>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講師 · <sup>3</sup>韓醫學古典研究所 博士後研究員

金度勳<sup>1</sup> · 安鎮熹<sup>2,3\*</sup>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ung, Stomach and Kidney in 『Lingshu·Dongshu』 - Focused on the Contents in 『Huangdineijing』 -

Kim Do-Hoon<sup>1</sup>·Ahn Jinhee<sup>2,3\*</sup>

<sup>1</sup>Professor at 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sup>2</sup>Lecturer in th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up>3</sup>Post-doctoral Researcher at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bjectives**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ungs, Stomach and Kidneys were examined in relation to their pulses continuously beating without rest as discussed in the 『Lingshu·Dongshu』, with other chapters in the 『Huangdineijing』.

**Methods** : Chapters in the 『Huangdineijing』 and annotations were referenced in relation to the contents in question of the 『Lingshu·Dongshu』.

**Results & Conclusions** : In 『Lingshu·Dongshu』, the Stomach of the Zuyangming is central. In the flow of Qi that is produced and circulated from the Stomach, we can see that Ancestral qi that is created in the Stomach ascends and accumulates in the chest area to disperse Qi throughout the entire body according to breathing and pulsation, while Nutrient qi exits from the middle energizer and ascends to the Lungs, circulates the entire body and Qi that is partially similar to Defense qi moves upwards to the head and circulates. In the lower part of the body, Qi flows to the Zushaoyin that is associated with Jing qi to assist with actions of the Extra meridians, while it connects to the Ancestral sinew through Zujueyin allowing for smooth movement of the muscles and joints. The special emphasis on the pulsation points of the three meridians, Shoutaiyin, Zuyangming and Zushaoyin, is based on the Qi thoroughfare[氣街] theory, wher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all Qi in the upper, middle, and lower energizers of the body manifest as pulse movement of the three meridians, which are the fundamental rhythms and movements of life.

**Key words** : 『Huangdineijing(黃帝內經)』, 『Lingshu(靈樞)』, Dongshu(動輸), Lung, Stomach, Kidney

\* Corresponding author : Ahn Jinhee.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961-9183, Fax : +82-2-961-9229, Email : jini@khu.ac.kr

Received(November 9, 2020), Revised(November 15, 2020), Accepted(November 15,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序論

『靈樞·動輸』에는 手太陰, 足陽明, 足少陰 세 경맥의 맥동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肺, 胃, 腎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세 장부 가운데 핵심은 足陽明의 胃로서 외부로부터 水穀을 받아들여 腐熟시키고 營氣, 衛氣, 宗氣 등의 형태로 전환하여 온몸으로 氣血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편의 내용은 단순히 경맥의 맥동처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胃를 중심으로 한 우리 몸의 구성 요소들인 氣, 血, 精, 津液 등의 생성과 순환, 그 경로들로 구성된 전신의 네트워크 관계를 설명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네트워크 작용에 대하여 『黃帝內經』의 기타 여러 편에서 언급한 관련 내용들을 함께 비교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로는, 국내에서 張大源, 李南九, 蔡禹錫 등의 『靈樞·動輸』에 대한 研究<sup>1)</sup>가 있는데, 여러 주석들의 내용을 비교한 서지학적 연구에 가까우며, 중국 CNKI DB에서는 『靈樞·動輸』 관련 직접적인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胃와 肺, 腎의 관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肺와 胃의 관계에 대하여 『素問·欬論』의 “聚於胃, 關於肺” 조문에 대한 연구<sup>2)</sup>, “脾爲生痰之源, 肺爲貯痰之器”의 의미에 대한 연구<sup>3)</sup>, 『素問·水熱穴論』의 “腎者, 胃之關” 조문에 대한 연구<sup>4)</sup> 등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素問·欬論』의 “此皆聚於胃, 關於肺” 관련 단편적인 연구들<sup>5)</sup>이 있을 뿐이며, 五臟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내용 가운데에 胃와 肺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다룬 내용들<sup>6)</sup>, 胃 대신 脾와 기타 五臟 간의

관계를 다룬 내용<sup>7)</sup> 등이 일부 있었으나, 肺胃腎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룬 논문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靈樞·動輸』의 肺, 胃, 腎 관계 내용에 대하여 『黃帝內經太素』(楊上善)<sup>8)</sup>,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馬蒔)<sup>9)</sup>, 『類經』(張介賓)<sup>10)</sup>, 『黃帝內經靈樞集注』(張志聰)<sup>11)</sup>, 『素問靈樞類纂約注』(汪昂)<sup>12)</sup>, 『靈樞懸解』(黃元御)<sup>13)</sup>, 『靈樞識』(丹波元簡)<sup>14)</sup>, 『靈素節注類編』(章楠)<sup>15)</sup> 등에 기재된 주석의 주요 부분을 선별하여 살펴보았으며, 『黃帝內經』의 기타 여러 편의 내용들 가운데 『靈樞·動輸』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氣街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몸의 上中下 三焦에서 先天과 後天을 아우르는 모든 氣의 생성과 순환이 생명의 근본적인 율동을 의미하는 脈動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나아가 胃로 들어온 水穀이 우리 몸의 어떠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氣, 血, 精 등의 여러 요소들로 전화되어 전신을 순환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II. 本論

### 1. 『靈樞·動輸』 내용에 대한 주요 주석

『靈樞·動輸』에는 편명에서 알 수 있듯이 上中下 각각의 동맥처를 설명하면서 肺, 胃, 腎의 상호 관

1) 張大源, 李南九, 蔡禹錫. 『靈樞·動輸』에 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9. 12(2). pp.293-315.  
2) 白裕相, 金鍾鉉. 『素問·欬論』의 ‘聚於胃, 關於肺’ 條文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7. 30(3). pp.167-180.  
3) 윤기영, 백유상, 장우창, 정창현. “脾爲生痰之源, 肺爲貯痰之器”의 의미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8. 31(3). pp.109-122.  
4) 方正均. 『素問·水熱穴論』의 “腎者, 胃之關”에 대한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19(2). 2006. pp.19-27.  
5) 譚方. 聚於胃關於肺理論研究. 北京中醫藥大學大學院. 2011. pp.1-55.  
陳旭青, 嚴道南. 內經此皆聚於胃關於肺探討. 四川中醫. 2015. 33(11). pp.1-3.

6) 張效霞. 臟腑功能辨析.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pp.15-18, p.87, p.89-90, p.96, p.107.  
7) 曲清文. 中醫五臟相關學說述要與《臨證指南醫案》臟腑辨證用藥的相關性研究. 廣州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p.11, 17, pp.34-35, 38-41, 47-49.  
陳堅雄. 中醫五臟相關學說的理論研究. 廣州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p.39, 41, 61, 67.  
8) 錢超塵, 李雲.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9)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10) 張介賓.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11) 張志聰. 黃帝內經集注. 浙江. 浙江古籍出版社. 2002.  
12) 汪昂 著, 金容辰 譯註. 素問靈樞類纂約註. 서울. 世昌出版社. 2013.  
13) 黃元御. 靈樞懸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8.  
14) 丹波元簡. 靈樞識(車修堂醫書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5)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계를 기술하고 있다. 원문에 대한 역대 주석의 내용 가운데 세 臟腑의 상호관계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발췌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黃帝曰，經脈十二，而手太陰足少陰陽明，獨動不休，何也。岐伯曰，是明胃脈也。胃爲五藏六府之海，其清氣上注於肺，肺氣從太陰而行之，其行也，以息往來，故人一呼，脈再動，一吸，脈亦再動，呼吸不已，故動而不止。黃帝曰，氣之過於寸口也，上十焉息，下八焉伏，何道從還，不知其極。岐伯曰，氣之離藏也，卒然如弓弩之發，如水之下岸，上於魚以反衰，其餘氣衰散以逆上，故其行微。<sup>16)</sup>

이 부분은 『靈樞·動輸』의 전반부로서 手太陰, 足少陰, 足陽명의 세 맥이 왜 쉬지 않고 뛰는지에 대하여 문답하고 있다. 胃의 맑은 기운이 肺로 올라가서 호흡과 함께 왕래하면서 뛰게 되는데, 氣의 움직임이 弓弩를 쏘듯이 갑작스럽게 발동하였다가 쇠약해지면서 사라지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 丹波元簡은 『靈樞識』에서 “簡案，仲景取寸口附陽太谿，即手太陰，足陽明，足少陰之脈也。”<sup>17)</sup>라고 하여 仲景의 脈法을 근거로 세 맥의 박동을 설명하였다. 또한 張介賓은 『類經·經絡類·三經獨動』에서 “手足之脈，共十二經，然惟手太陰足少陰足陽明三經獨多動脈，而三經之脈則手太陰之太淵，足少陰之太谿，足陽明上則人迎，下則衝陽，皆動之尤甚者也。”<sup>18)</sup>라고 하여 太淵, 太谿, 人迎, 衝陽 등의 구체적인 동맥처들을 제시하였다. 『素問·三部九候論』에서는 兩額, 耳前, 兩頰 등의 세 동맥과 手太陰, 手少陰, 手陽明, 足厥陰, 足太陰, 足少陰 등의 9군데 동맥처를 통하여 진단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는데<sup>19)</sup>, 『靈樞·動輸』에서 手太陰, 足陽明, 足少陰 등만 쉬지 않고 뛰는다고 특별히 강조하였다. 실제 다른 동맥처도 쉬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설명한 이유에 대하여, 張介賓은 『類經·經絡類·三經獨動』에서 단지 이 세 경맥의 맥동처가 뛰는 것이 더욱 심하다고 설명하였으나, 張志聰은 『黃帝內經靈樞集注』에서 “此章論營衛宗氣，循度行於經脈之外內，衝脈行於足少陰陽明之經，而出於腹氣脛氣之街，以明血氣行於經脈皮膚之間，交相和平俞應者也。”<sup>20)</sup>라고 하여, 세 경맥을 중심으로 氣의 운행 네트워크를 설명하고자 한 본 편의 의도를 분명히 설명하였다.

또한 楊上善은 『黃帝內經太素』에서 “大氣搏而不行，名爲宗氣，積於胸中，命曰氣海，出於肺，循喉嚨，呼則出，吸則入也。故胃爲五藏六府之海也，……，其手太陰脈上下行也，要由胸中氣海之氣，出肺，循喉嚨，呼出吸入，以息往來，故手太陰脈得上下行。”<sup>21)</sup>이라고 하여, 胃로부터 清氣가 肺로 올라가는 것이 곧 宗氣의 움직임이라 보았고, 氣가 흉부의 氣海에 쌓인다고 하였다. 이는 『靈樞·五味』에서 水穀이 胃로 들어와 大氣가 멎쳐 운행하지 않는 것이 胸中에 쌓여 氣海가 되고 다시 호흡을 통해 氣가 출입함을 의미한다.<sup>22)</sup> 또한 張志聰은 『黃帝內經靈樞集注』에서 “清氣上注於肺者，營氣宗氣也。肺氣從太陰而行之者，脈氣隨三陰三陽之氣而行也。”<sup>23)</sup>라고 하여 맑은 氣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宗氣뿐만 아니라 營氣도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胃와 肺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黃元御는 『靈樞懸解』에서 “蓋經之動，氣送之也，氣統於肺，而胃爲化氣之原，故悉屬陰陽胃脈之力也。”<sup>24)</sup>라고 하여 氣가 肺의 통술을 받지만 氣를 化生하는 근원은 胃에 있으며, 따라서 手太陰, 足少陰, 足陽明 세 맥의 박동이 모두 胃脈의 氣로부터 온다고 설명하였다.

黃帝曰，足之陽明，何因而動。岐伯曰，胃氣上注於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67.  
17) 丹波元簡. 靈樞識(律修堂醫書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822.  
18) 張介賓.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329.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81-82.

20) 張志聰. 黃帝內經集注. 浙江, 浙江古籍出版社. 2002. p.349.  
21) 錢超塵, 李雲.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p.145-146.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46. “穀始入於胃，其精微者，先出於胃之兩焦，以溉五藏，別出兩行，營衛之道。其大氣之搏而不行者，積於胸中，命曰氣海，出於肺，循喉嚨，故呼則出，吸則入。”  
23) 張志聰. 黃帝內經集注. 浙江, 浙江古籍出版社. 2002. p.349.  
24) 黃元御. 靈樞懸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96.

肺, 其悍氣上衝頭者, 循咽上走空竅, 循眼系, 入絡腦, 出頤, 下客主人循牙車, 合陽明, 并下人迎, 此胃氣別走於陽明者也. 故陰陽上下, 其動也若一. 故陽病而陽脈小者爲逆, 陰病而陰脈大者, 爲逆. 故陰陽俱靜俱動, 若引繩相傾者, 病.<sup>25)</sup>

이 부분은 『靈樞·動輸』의 중간 부분으로 胃氣 가운데 사나운 氣가 머리로 올라갔다 다시 人迎으로 내려와서 박동을 하여 앞서 말한 太淵의 氣口와 더불어 陰陽의 조율 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楊上善도 『黃帝內經太素』에서 “陰謂寸口, 手太陰也. 陽謂人迎, 足陽明也. 上謂人迎, 下謂寸口. 有其二義, 人迎是陽, 所以居上也, 寸口是陰, 所以居下也. 又人迎在頸, 所以爲上, 寸口在手, 所以爲下.”<sup>26)</sup>라고 하여, 足陽명의 박동치인 人迎과 手太陰의 박동치인 寸口를 陰陽 관계로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馬蒔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에서 “三焦之氣皆從胃氣而生, 營氣隨宗氣, 以上注於肺而行之.”<sup>27)</sup>라고 하여, 上中下 三焦의 氣가 모두 胃氣로부터 생성되며, 위로 올라가는 營氣가 반드시 宗氣를 따라가야만 肺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본문의 悍氣는 衛氣와 유사한 사나운 성질의 氣인데 張志聰은 『黃帝內經靈樞集注』에서 營氣, 宗氣가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서도 여기서의 氣는 바로 衛氣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하였다.<sup>28)</sup>

黃帝曰, 足少陰何因而動. 岐伯曰, 衝脈者, 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於腎下, 出於氣街, 循陰股內廉, 邪入臍中, 循脛骨內廉, 并少陰之經, 下入內踝之後, 入足下. 其別者, 邪入踝, 出屬附上, 入大指之間, 注諸絡, 以溫足脛, 此脈之常動者也. 黃帝曰, 營衛之行也, 上下相貫, 如環之無端. 今有其卒然遇邪氣, 及逢大寒, 手足懈惰, 其脈陰陽之道, 相輸之會,

行相失也, 氣何由還. 岐伯曰, 夫四末陰陽之會者, 此氣之大絡也. 四街者, 氣之徑路也. 故絡絕則徑通, 四末解則氣從合, 相輸如環. 黃帝曰, 善. 此所謂如環無端, 莫知其紀, 終而復始, 此之謂也.<sup>29)</sup>

이 부분은 『靈樞·動輸』의 마지막 부분으로 足少陰의 동맥처가 박동하는 것은 바로 衝脈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氣의 경로가 되는 四街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足少陰의 구체적인 박동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가들이 衝脈이 지나가는 여러 곳으로 보았는데, 예를 들어 張介賓은 『類經·經絡類·三經獨動』에서 “此太谿等脈所以常動不已也.”<sup>30)</sup>라고 하여 太谿 등 여러 곳으로 보았다. 단, 汪昂은 『素問靈樞類纂約注』에서 “卽陽明胃經氣衝穴, 俠臍去四寸動脈應手.”<sup>31)</sup>라고 하여 복부의 동맥으로 보았다. 張志聰은 『黃帝內經靈樞集注』에서 頭, 胸, 腹, 脛에 氣街가 있고 여기서는 각각 腹氣街와 脛氣街를 설명하였으며, 이들이 12경맥의 標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靈樞·動輸』에서 陽明과 少陰의 動輸를 설명한 것이라 하였다<sup>32)</sup>. 즉, 일반적인 12경맥이 標本을 통하여 氣가 출입하여 如環無端하게 하나의 길로 이어지는 것은 곧 營氣와 衛氣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營氣와 衛氣가 순환을 시작할 때에는 上焦에서부터 시작하므로 그 氣가 頭와 胸의 氣街에 모여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하여 『靈樞·動輸』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한 陽明과 少陰의 血氣는 일반적인 12경맥의 순환에서 별도로 갈라져 나와 아래로 내려가 腹과 脛의 氣街를 형성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動輸處를 따로 제시하였다는 의미이다.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67.

30) 張介賓.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331.

31) 汪昂 著, 金容辰 譯註. 素問靈樞類纂約註. 서울. 世昌出版社. 2013. pp.344-345.

32) 張志聰. 黃帝內經集注. 浙江. 浙江古籍出版社. 2002. p.351. “夫衛氣者, 陽明所生之氣也. 上節論衛氣之別走陽明, 合於人迎, 是從胸膈腹而下至附上, 如左右之動脈, 與衝脈會於臍間, 則陽明之血氣隨衝脈而出腹氣之街矣. 此節論衝脈與少陰出於脛氣之街, 蓋手足十二經之本標, 止出於頭氣之街, 胸氣之街, 營衛之行, 從本而入, 從標而出, 上下相貫, 如環無端. 其腹氣之街, 脛氣之街, 乃別出陽明少陰之血氣, 不在十二經脈本標之內, 故別提出陽明少陰之動輸焉.”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67.

26) 錢超塵, 李雲.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147.

27)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428.

28) 張志聰. 黃帝內經集注. 浙江. 浙江古籍出版社. 2002. p.351.

章楠은 또한 『靈素節注類編』에서 “由是觀之, 四街者, 臟腑之氣所行也, 邪淺在經, 則街通而病輕. 邪入於腑, 則街塞而病危, 邪入於臟, 則街路絕而死矣.”<sup>33)</sup>라고 하여, 四街가 臟腑로 기가 통하는 중요한 곳이며 이곳이 막히거나 끊어지면 병이 위태롭게 된다고 하였다.

참고로 『靈樞·動輸』에서 말한 手太陰, 足陽明, 足少陰 각각의 동맥처를 정리하면, 手太陰의 경우는 太淵이며, 足陽明의 경우는 人迎이며, 下焦의 足少陰과 관련된 동맥처는 다양하여 太谿<sup>34)</sup>, 衝陽<sup>35)</sup>, 氣衝<sup>36)</sup> 등으로 보았다. 단, 腹氣街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배꼽 좌우의 盲脇, 天樞 등으로 보았으며, 宗氣가 上焦로 올라오는 것을 고려하면 흉부의 맥동처인 虛里도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2. 肺와 胃의 관계

### 1) 水穀의 轉化 과정

水穀이 우리 몸으로 들어온 이후 그 精微로운 氣가 胃를 거쳐서 肺로 올라가는 경로에 대한 설명은 『素問·經脈別論』에 나타나 있다. 『素問·經脈別論』에서는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脈氣流經, 經氣歸於肺, 肺朝百脈, 輸精於皮毛. 毛脈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留於四藏, 氣歸於權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 飲入於胃, 游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並行, 合於四時五藏陰陽, 揆道以爲常也.”<sup>37)</sup>라고 설명하였는데, 胃로 들어온 水穀이나 수분은 精 또는 氣의 형태를 통하여 上焦의 心肺로 올라가며, 특히 肺朝百脈과 毛脈合精의 작용을 거쳐서 다시 精化되어 經脈을 순환하거나 通調水道的 작용을 거치면서 液化되어 방광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精化 과정을 통하여 神이 같이 활동

을 하여 五臟의 운동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sup>38)</sup>.

우리 몸에 들어온 水穀이 血, 氣, 精 등으로 精化되는 과정을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水爲陰, 火爲陽, 陽爲氣, 陰爲味. 味歸形,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 精食氣, 形食味, 化生精, 氣生形. 味傷形, 氣傷精, 精化爲氣, 氣傷於味.”<sup>39)</sup>라 하였는데, 여기서 반드시 氣의 과정을 거쳐서 精이 생성되며, 精이 氣화된 精氣가 다시 精을 생성하는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sup>40)</sup>. 따라서 水穀이 氣化되어 上焦로 올라가고 다시 精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胃로부터 肺로 맑은 기운이 올라간다고 표현한 것이다.

### 2) 宗氣 생성과 순환

胃로 들어온 水穀으로부터 肺로 올라가는 氣의 흐름과 관련하여 宗氣의 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宗氣는 營氣, 衛氣와 더불어 水穀이 셋으로 轉化되면서 갈라져 나오는데, 『靈樞·邪客』에서 “五穀入於胃也, 其糟粕津液宗氣, 分爲三隧, 故宗氣積於胸中, 出於喉嚨, 以貫心脈, 而行呼吸焉.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藏六府, 以應刻數焉. 衛氣者, 出其悍氣之慄疾, 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者也, 晝日行於陽, 夜行於陰, 常從足少陰之分間, 行於五藏六府.”<sup>41)</sup>라고 하여<sup>42)</sup>, 心脈을 관통하고 호흡을 일으키는 宗氣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宗氣가 脈을 통하여 드러나는 곳이 바로 胃의 大絡인 虛里이다. 『素問·平人氣象論』에서 眞藏脈의 象을 설명하면서 “藏眞下於腎, 腎藏

33)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81.

34) posterior tibial artery가 지나가는 곳에 해당한다.

35) dorsalis pedis artery가 지나가는 곳이다.

36) superficial epigastric artery, inferior epigastric artery 등이 지나가는 곳이다.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6.

38) 白裕相. 經絡의 循環과 精氣 生成의 관계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55.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

40) 白裕相.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氣轉化 過程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1). pp.12-13.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98

42) 『靈樞·邪客』에서 水穀이 胃로 들어온 이후 宗氣, 營氣, 衛氣 등으로 나뉘어 순행하는 것을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靈樞·動輸』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자들이 宗氣, 營氣 및 衛氣와 유사한 氣가 상하로 순행함을 설명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두 편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骨髓之氣也. 胃之大絡, 名曰虛里, 貫兩絡肺, 出於左乳下, 其動應衣, 脈宗氣也. 盛喘數絕者, 則病在中, 結而橫, 有積矣. 絕不至曰死. 乳之下其動應衣, 宗氣泄也.”<sup>43)</sup>라고 하여 胃의 大絡인 虛리가 횡격막[膈]을 관통하고 肺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흉부로 나와 심박동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靈樞·刺節眞邪』에서는 “用鍼之類, 在於調氣, 氣積於胃, 以通營衛, 各行其道, 宗氣留於海, 其下者, 注於氣街, 其上者, 走於息道. 故厥在於足, 宗氣不下, 脈中之血, 凝而留止, 弗之火調, 弗能取之.”<sup>44)</sup>라고 하여, 胃에 쌓인 氣가 각각의 길로 퍼져나가고 그 가운데 宗氣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 氣街에 이르며 위로는 氣道로 달려간다고 하였다. 또한 이때 宗氣가 아래의 氣街로 내려가지 못할 경우 厥證이나 瘀血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宗氣는 胃로부터 올라가 胸中에 쌓이는 氣로 心肺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sup>45)</sup>, 호흡이나 맥동과 같이 생명 운동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작용을 하여<sup>46)</sup>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營氣, 衛氣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3) 氣口脈의 형성

또한 水穀의 精微로운 氣가 胃로부터 나와 太陰으로가서 氣口脈을 형성하게 되는데, 『素問·五藏別論』에서는 氣口에서 홀로 五臟을 주관하는 것에 대하여, “胃者水穀之海, 六府之大源也. 五味入口, 藏於胃以養五藏氣, 氣口亦太陰也. 是以五藏六府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 故五氣入鼻, 藏於心肺, 心肺有病, 而鼻爲之不利也.”<sup>47)</sup>라고 하여 五臟六腑의 氣味가 모두 胃에서 나와 氣口에서 변하여 나타나므로 이를 진찰하여 五臟의 병을 알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sup>48)</sup>. 또한 『素問·玉機眞藏論』에서는 “五藏者, 皆稟

氣於胃, 胃者五藏之本也, 藏氣者, 不能自致於手太陰, 必因於胃氣, 乃至於手太陰也, 故五藏各以其時, 自爲而至於手太陰也. 故邪氣勝者, 精氣衰也, 故病甚者, 胃氣不能與之俱至於手太陰, 故眞藏之氣獨見, 獨見者病勝藏也, 故曰死.”<sup>49)</sup>라고 하여, 五臟이 모두 胃로부터 氣를 받는데 반드시 胃氣에 기인해야만 手太陰까지 氣가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4) 脾胃와 肺의 병리적 관계

『素問·效論』에서는 臟腑의 效를 설명하면서 “此皆聚於胃, 關於肺, 使人多涕唾, 而面浮腫氣逆也.”<sup>50)</sup>라 하여 胃와 肺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대부분의 주가들은 이 구절을 병리적 기전으로 설명하였는데, 王冰은 이에 대하여 “中焦者, 亦至於胃口,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 故言皆聚於胃, 關於肺也.”<sup>51)</sup>라고 하여 胃로부터 肺까지의 생리적인 水穀 轉化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도 또한 『素問·經脈別論』에서 “飲入於胃, 水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sup>52)</sup>이라 하여 飲이 胃로 들어가고 脾가 그 精微를 肺로 보내서 肺가 通調水道하여 水精을 생성한다고 설명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sup>53)</sup>. 병리적으로는 聚於胃는 濁氣가 胃에 모여 痰飲이 생기는 것이고, 關於肺는 痰飲이 胸部를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5.

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16.

45) 宋志靑, 琴桐樹, 嚴東明. 宗氣와 神氣의 關係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6). p.48.

46) 辛相元. 宗氣의 의미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9. 32(3). p.165.

4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42.

48) 柳大植, 琴桐樹. 『素問·五藏別論』에 對한 研究. 大韓原典醫學學會誌. 1994. 8. p.263.

4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75.

5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2. “帝曰六府之效奈何. 安所受病. 岐伯曰五藏之久效, 乃移於六府. 脾效不已, 則胃受之, 胃效之狀, 效而嘔, 嘔甚則長蟲出. 肝效不已, 則膽受之, 膽效之狀, 效而膽汁, 肺效不已, 則大腸受之, 大腸效狀, 效而遺矢. 心效不已, 則小腸受之, 小腸效狀, 效而失氣, 氣與效俱失. 腎效不已, 則膀胱受之, 膀胱效狀, 效而遺溺. 久效不已, 則三焦受之. 三焦效狀, 效而腹滿, 不欲食飲. 此皆聚於胃, 關於肺, 使人多涕唾, 而面浮腫氣逆也.”

51)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p.240-241.

5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6.

53) 白裕相, 金鍾鉉. 『素問·效論』의 ‘聚於胃, 關於肺’ 條文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7. 30(3). p.172.

막아서 咳嗽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4</sup>). 또한 이와 유사하게 『本草綱目·草部·半夏』에서는 “脾爲生痰之源，肺爲貯痰之器.”<sup>55</sup>)라고 하였는데, 脾胃가 허하여 運化 기능이 약해지면 痰이 발생하고 이후에 肺에 痰이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sup>56</sup>). 또한 의가들 중에는 肺 이외에 胃가 痰을 담는 그릇이라고도 하였는데<sup>57</sup>), 痰의 발생 위치를 통하여 胃와 肺의 병리적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 3. 胃와 腎의 관계

#### 1) 衝脈과 氣街의 관계

足少陰이 動하는 것과 관련하여 衝脈이 少陰의 大絡과 더불어 腎의 아래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衝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衝脈에 대하여 『黃帝內經』 내의 기술이 복잡하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胸中에서 일어나서 足少陰腎經과 병행하여 위로 가는 노선이 있고, 氣街를 기점으로 사타구니 안쪽으로 내려가는 노선이 있다<sup>58</sup>). 『靈樞·逆順肥瘦』에서 “夫衝脈者，五藏六府之海也，五藏六府皆稟焉。其上者，出于頰頰滲諸陽，灌諸精。其下者，注少陰之大絡，出於氣街，循陰股內廉，入臍中，伏行肝骨內，下至內踝之後屬而別。其下者，並於少陰之經，滲三陰，其前者，伏行出跗屬，下循跗，入大指間，滲諸絡而溫肌肉。夫別絡結則跗上不動，不動則厥，厥則寒矣.”<sup>59</sup>)라고 하여 衝脈의 하행노선이 氣街에서 일어나 少陰經과 병행함을 말하였고, 『難經·二十八難』에서도 “衝脈者，起於氣街，並少陰之經，俠齊上行，至胸中而散.”<sup>60</sup>)이라고 하여 衝脈이 氣街에서 일어나

少陰經과 병행하여 배꼽을 끼고 위로 상행하다가 胸中에서 흩어진다고 하였다. 『靈樞·五音五味』에서는 “衝脈任脈，皆起於胸中，上循背裏，爲經絡之海。其浮而外者，循腹各(右)上行，會於咽喉，別而絡唇口.”<sup>61</sup>)라고 하여 衝脈이 胸中에서 일어나 상행하여 咽喉에서 만나고 입술에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때 衝脈은 胞를 통하여 任脈과 연결된다.

한편 『素問·骨空論』에서는 “衝脈者，起於氣衝，並足陽明之經，夾齊上行，至胸中而散也.”<sup>62</sup>)라고 하여 衝脈이 氣衝에서 일어나 足陽明脈과 병행하여 배꼽을 끼고 흉중에서 흩어짐을 말하였는데, 氣衝은 곧 氣街를 말한다. 氣街는 動脈이 뛰는 곳으로 두덩결합 위모서리와 같은 높이로 앞정중선에서 가쪽으로 2寸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水穀之海가 유여하면 나타나는 腹中有大熱不安，腹有大氣如相俠，暴腹脹滿 등의 증상을 치료하고, 氣가 집적되어 腹部나 脇部와 같은 체간에서 下肢로 내려갈 때에 통로나 교차로의 역할을 담당하여<sup>63</sup>) 『靈樞·海論』에서 “胃者，水穀之海，其輸上在氣街，下至三里.”<sup>64</sup>)라고 하였다. 『素問·痿論』에서는 “衝脈者，經脈之海也，主滲灌谿谷，與陽明合於宗筋。陰陽摠宗筋之會，會於氣街，而陽明爲之長，皆屬於帶脈，而絡於督脈.”<sup>65</sup>)이라고 하여 衝脈이 陽明과 더불어 宗筋에서 합함을 말하였다. 宗筋은 陰器에 집중된 관점 외에도 氣街穴을 포함한 少腹部를 의미할 수 있어서 氣街에서 일어난다고 한 것과 동떨어지지 않고, 宗筋의 역할도 衝脈이 血과 元氣를 관절에 잘 滋養할 수 있도록 돕는다<sup>66</sup>). 『靈

54) 白裕相, 金鍾鉉. 『素問·效論』의 ‘聚於胃, 關於肺’條문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7. 30(3). p.178.

55) 柳長華 主編. 李時珍醫學全書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3. p.709.

56) 윤기령, 백유상, 장우창, 정창현. “脾爲生痰之源, 肺爲貯痰之器”의 의미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8. 31(3). p.112, 115.

57) 윤기령, 백유상, 장우창, 정창현. “脾爲生痰之源, 肺爲貯痰之器”의 의미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8. 31(3). pp.115-117.

58) 安鎮熹. 『靈樞·海論』의 四海 輸穴 선정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20. 33(2). pp.91-108.

5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89.

60)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編. 難經. 서울. 法仁文化社. p.80.

6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82. 같은 책에서 ‘循腹右上行’에 대하여 素問「腹中論」·「奇病論」·「骨空論」王注引 鍼經에는 ‘循腹各行’으로 되어 있다고 했고, 顧氏 校記에 ‘右乃各字之誤’라고 하였다.

6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09.

63) 安鎮熹. 『靈樞·海論』의 四海 輸穴 선정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20. 33(2). pp.91-108.

6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4.

6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6.

66) 金鍾鉉, 金度勳. 宗筋의 部位와 機能에 관한 考察. 大韓韓

樞·動輸』에서 足少陰經을 말하면서 衝脈을 말한 것은 衝脈이 先天之氣[元氣]를 陽明에 공급하고, 陽明은 이를 바탕으로 營·衛氣를 생성하기 때문이며<sup>67)</sup>, 唐容川도 『中西匯通醫經精義』에서 “衝脈起于胞中, 導先天腎氣而上行, 以交于胃, 導後天陰血下行入胞中, 以交于腎, 導氣而上, 導血而下, 通于腎, 麗于陽明, 衝脈之所司可知矣.”<sup>68)</sup>라고 하여 衝脈과 先天腎氣 및 後天胃氣 사이의 관련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衝脈이 공급하는 氣血은 陽明의 水穀之氣血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元氣와 精氣를 포함하여 좀 더 고차원적인 생명 활동에 관여한다고 보기도 한다<sup>69)</sup>.

## 2) 『素問·痿論』의 ‘獨取陽明’ 관련 내용

『素問·痿論』에서 “論言治痿者, 獨取陽明, 何也. 歧伯曰 陽明者, 五藏六府之海, 主潤宗筋, 宗筋主束骨而利機關也. 衝脈者, 經脈之海也, 主滲灌谿谷, 與陽明合於宗筋. 陰陽總宗筋之會, 會於氣街, 而陽明爲之長, 皆屬於帶脈, 而絡於督脈. 故陽明虛則宗筋縱, 帶脈不引, 故足痿不用也.”<sup>70)</sup>라고 하여 痿病의 治法을 논하면서 陽明, 衝脈, 宗筋, 氣街 등을 거론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胃, 腎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痿病에 陽明을 取하라고 하였으나 醫家들의 논설에서는 陽明뿐만이 아니라 腎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는데, 張子和는 『儒門事親』에서 “故內經謂治痿之法, 獨取陽明經. 陽明經者, 胃脈也, 五臟六腑之海也, 主潤養宗筋. 宗筋主束骨, 束骨在膻下陰毛際上是也. 又主大利機關. 機關者, 身中大關節也, 以司曲伸. 是以陽明虛則宗筋縱, 宗筋縱則大脈不伸, 兩足痿弱. 然取陽明者, 胃脈也, 胃爲水穀之海. 人之四季, 以胃氣爲本. 本固則精化, 精化則髓充, 髓充則足能履也.”<sup>71)</sup>라고 하

여, 胃氣를 근본으로 삼고서 근본이 튼튼해야 精化하며 精化해야 骨髓가 충분하며, 骨髓가 충분해야 능히 걸을 수가 있다고 하여 胃와 腎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局方發揮』에서도 “故陽明實, 則宗筋潤, 能束骨, 而利機關矣. 治痿之法, 無出於此. 駱隆吉亦曰, 風火既熾, 當滋腎水, 東垣先生, 取黃柏爲君, 黃芪等補藥之輔佐以治諸痿 而無一定之方. 有兼痰積者, 有濕多者, 有熱多者, 有濕熱相半者, 有挾氣者, 臨病製方, 其善於治痿者乎. 雖然藥中肯綮矣. 若將理失宜, 聖醫不治也. 天產作陽, 厚味發熱, 先哲格言, 但是患痿之人, 若不淡薄食味, 吾知其必不能安全也.”<sup>72)</sup>라고 하여 痿病을 치료함에 있어서 陽明을 實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滋腎水가 중요함을 설명하였다<sup>73)</sup>. 『石室秘錄』에서도 “蓋諸痿之證, 乃屬陽明胃火, 胃火燻及腎水, 則胃中空虛, 無以滋潤, 則不能起立矣. 然則止治陽明, 而骨中之髓, 何日長滿, 欲其雙足有力難矣.”<sup>74)</sup>라고 하여 胃火가 타오르면 腎水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말하였는데, 胃와 腎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 3) 宗筋의 기능

『素問·痿論』에서 “陽明者, 五藏六府之海, 主潤宗筋, 宗筋主束骨而利機關也. 衝脈者, 經脈之海也, 主滲灌谿谷, 與陽明合於宗筋. 陰陽總宗筋之會, 會於氣街, 而陽明爲之長, 皆屬於帶脈, 而絡於督脈. 故陽明虛則宗筋縱, 帶脈不引, 故足痿不用也.”<sup>75)</sup>라고 하여 宗筋이 뼈를 결속하고 機關을 滑利하게 하여 운동과 힘의 起點이 되고, 陽明의 자양을 받으며 衝脈과 陽明은 宗筋에서 합쳐진다. 이때 陽明이 水穀의 精微를 宗筋에 공급한다면 衝脈은 陽明이 水穀에서 얻은 氣血과는 차별되는 元氣와 精氣를 포함하여 좀 더 精微한 氣血을 공급하게 된다<sup>76)</sup>.

醫學原典學會誌. 2017. 30(4). pp.19-34.

67) 곽범희, 윤종화. 人迎氣口脈診法과 衝脈의 關係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9. 32(4). pp.47-55.

68) 唐容川 著.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7.

69) 金鍾鉉, 金度勳. 宗筋의 部位와 機能에 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7. 30(4). pp.19-34.

7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6.

71) 商務印書館 編. 儒門事親(欽定四庫全書 13 子部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09.

72) 商務印書館 編. 局方發揮(欽定四庫全書 14 子部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80.

73) 安鎮燾, 徐準皓. 『素問·痿論』의 獨取陽明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9. 32(4). pp.91-107.

74) 陳士鏞. 正校石室秘錄. 서울. 杏林出版. 1987. p.81.

7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6.

76) 金鍾鉉, 金度勳. 宗筋의 部位와 機能에 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7. 30(4). pp.19-34.

『素問·厥論』에서 “帝曰，寒厥何失而然也。岐伯曰，前陰者，宗筋之所聚，太陰陽明之所合也。春夏則陽氣多而陰氣少，秋冬則陰氣盛而陽氣衰。此人者質壯，以秋冬奪於所用，下氣上爭，不能復，精氣溢下，邪氣因從之而上也。”<sup>77)</sup>라고 하여 前陰이 宗筋이 모이는 곳이고 太陰과 陽明이 합해지는 곳이라고 하였다. 또한 『靈樞·五音五味』에서 “岐伯曰 宦者去其宗筋，傷其衝脈，血寫不復，皮膚內結，脣口不榮，故鬚不生。…… 岐伯曰，此天之所不足也，其任衝不盛，宗筋不成，有氣無血，脣口不榮，故鬚不生。”<sup>78)</sup>이라고 하여 宗筋이 제거되면 衝脈이 손상되는 것을 말하였는데, 이를 통해 宗筋과 衝脈, 血의 盛衰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胃가 水穀之海로써 氣血을 공급하므로 衝脈의 공급을 받는 宗筋을 통해서도 胃, 腎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全生指迷方』에서는 “若腰脊不舉，由遠行勞倦，逢大熱而渴，陽氣內伐，熱舍于腎，水不勝火，則骨枯而髓減 蓋陽明併腎，則腎脂枯而宗筋不調，宗筋主束骨而利機關也。”<sup>79)</sup>라고 하여 胃와 腎의 영양이 충분해야 宗筋이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음을 말하였고, 『醫門法律』에서는 “四肢不舉，有虛有實。陽明虛，則宗筋失潤，不能束骨而利機關。”<sup>80)</sup>이라고 하여 陽明이 虛하면 宗筋이 자양을 받지 못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胃와 腎의 관계성을 잘 드러내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臨証指南醫案·陽痿』에서 “陰陽虛則宗筋縱。蓋胃爲水穀之海，納食不旺，精氣必虛。況男子外腎，其名爲勢，若穀氣不充，欲求其勢之雄壯堅舉，不亦難乎。”<sup>81)</sup>라고 하여 胃, 腎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였다.

#### 4) 『素問·水熱穴論』의 “腎者，胃之關” 관련 내용

『素問·水熱穴論』에서 “帝曰，腎何以能聚水而生病。岐伯曰，腎者，胃之關也，關門不利，故聚水而從其類也。上下溢於皮膚，故爲附腫，附腫者，聚水而生病也。”<sup>82)</sup>라고 하여 附腫을 언급하면서 腎이 胃의 關이라 하였다. 關은 출입을 담당하는 관문으로 王冰과 馬蒔는 “關者，所以司出入也，腎主下焦，膀胱爲府，主其分注，關竅二陰，故腎氣化則二陰通，二陰闕則胃填滿，故云，腎者，胃之關也。關閉則水積，水積則氣停，氣停則水生，水生則氣溢，氣水同類，故云，關閉不利，聚水而從其類也。”<sup>83)</sup>라고 하여 腎이 氣化를 해야 二陰이 통하니, 二陰이 막히면 胃도 그득해지므로 腎이 胃의 관문이라고 하였다. 張介賓은 “關者，門戶要會之處，所以司啓閉出入也。腎主下焦，開竅于二陰，水穀入胃，清者由前陰而出，濁者由後陰而出，腎氣化則二陰通，腎氣不化則二陰閉，腎氣壯則二陰調，腎氣虛則二陰不禁，故曰腎者胃之關也。關閉則氣停，氣停則水積，水之不行，氣從乎腎，所謂從其類也。愚按，本節云，關門不利，則聚水而從其類者，言關之不通也。『脈要精微論』曰，倉廩不藏，是門戶不要也。水泉不止，是膀胱不藏也。得守者生，失守者死。言關之不固也。不通則癰閉而附腫，不固則滑泄而脫元，職此之由，總因腎敗。夫胃爲五藏六府之海，而關則在腎，關之爲義，操北門鎖鑰之柄，凡一身元氣消長，約束攸賴。故許知可云，補脾不若補腎者，謂救本之道，莫先乎此也。誠萬古不易之良法。”<sup>84)</sup>이라고 하여, 王冰이나 馬蒔와 마찬가지로 腎의 氣化 여부가 前陰과 後陰의 開閉를 조절하고, 胃가 五臟六腑의 바다라고 하지만 그 관건은 腎에 있어 腎이 本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다. 繆希雍은 “夫脾胃受納水穀，必藉腎間真陽之氣熏蒸鼓動，然後能腐熟而消化之，腎臟一虛，陽火不應，此內先天之真，丹溪所謂人非此火不能有生者也。治宜益火

7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9.

7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83.

79)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

80) 陳燿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驗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42.

81) 葉天士 著. 臨証指南醫案.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73. p.175.

8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213.

83) 郭霽春.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30.

馬蒔. 黃帝內經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77.

84)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p.729-730.

之源，當以四神丸加人蔘，沈香，甚者加熟附，茴香，川椒，……，注意益火以煥土。當脾胃虛及腎陽時，則用脾胃雙補丸培補脾胃，補火暖土。”<sup>85)</sup>라고 하여 胃가 水穀을 받아들인 후에 腎陽의 薰蒸이 뒷받침되어야만 腐熟시켜서 소화할 수가 있음을 말하였다.

胃, 腎의 관계는 病證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는데, 『素問·痺論』에서 “腎痺者, 善脹, 尻以代踵, 脊以代頭.”<sup>86)</sup>라고 하여 腎痺證에 脹滿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에서 張介賓은 “腎者胃之關, 腎氣痺則陰邪乘胃, 故腹善脹.”<sup>87)</sup>이라고 하여 腎의 이상으로 胃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素問·評熱病論』에서는 水腫病에 “煩而不能食”<sup>88)</sup>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腎陽의 부족으로 胃의 腐熟 기능이 잘 발휘되지 못하여 음식을 잘 먹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sup>89)</sup>. 『素問·評熱病論』에서는 “諸有水氣者, 微腫先見於目下也. 帝曰, 何以言. 岐伯曰, 水者, 陰也, 目下亦陰也, 腹者至陰之所居, 故水在腹者, 必使目下腫也.”<sup>90)</sup>라고 하였고, 『靈樞·脹論』에서는 “水始起也, 目窠上微腫, 如新臥起之狀, 其頸脈動, 時咳, 陰股間寒, 足腫脛, 腹乃大, 其水已成矣, 以手按其腹, 隨手而起, 如裹水之狀, 此其候也.”<sup>91)</sup>라고 하는 등 水腫病에 脾胃에 해당하는 아래쪽 眼瞼이나 目窠 등이 붓는다고 한 것을 통해서도 胃와 腎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5) 치아와 모발의 상태

『素問·上古天真論』에서 “岐伯曰, 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 , 三七, 腎氣平均, 故眞牙生而長極. …… , 五七, 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墮, ……”<sup>92)</sup>

라고 하여 여자가 35세가 되면 陽明脈이 쇠약해짐에 따라서 얼굴이 타들어 가기 시작하고 모발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髮은 『素問·六節藏象論』에서 “腎者, 主蟄封藏之本, 精之處也, 其華在髮, 其充在骨, 爲陰中之少陰, 通於冬氣.”<sup>93)</sup>라고 하여 보통 腎의 精氣가 밖으로 드러나는 곳으로 인식하지만, 齒齲처럼 腎과 陽明의 복합적 관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髮을 통하여 腎과 陽明, 즉 腎과 胃의 관계성을 엿볼 수가 있다<sup>94)</sup>. 『靈樞·經脈』에서는 “胃足陽明之脈, …… , 下循鼻外, 入上齒中, 還出挾口, 環唇.”<sup>95)</sup>이라고 하여 足陽明胃經의 유주노선 중에 윗니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고, 『靈樞·雜病』에서 “齒痛, 不惡清飲, 取足陽明, 惡清飲, 取手陽明.”<sup>96)</sup>이라고 하여 齒痛에 찬물을 싫어하느냐 싫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足陽明과 手陽明을 차별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를 통하여 齒가 단지 腎 뿐만이 아니라 胃와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素問·診要經終論』에서는 “少陰終者, 面黑, 齒長而垢, 腹脹閉, 上下不通而終矣.”<sup>97)</sup>라고 하였고, 『靈樞·經脈』에서는 “足少陰氣絕, 則骨枯, 少陰者, 冬脈也, 伏行而濡骨髓者也, 故骨不濡則肉不能著也, 骨肉不相親則肉軟却, 肉軟却故齒長而垢, 髮無澤, 髮無澤者骨先死, 戊篤已死, 土勝水也.”<sup>98)</sup>라고 하여, 少陰病의 말기에는 陰精의 부족으로 骨髓가 말라 치아에 때가 낀 것과 같고 잇몸이 약해지면서 치아가 외부로 드러나며, 치아와 치아를 둘러싼 잇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腹脹 증상이 나타나는데, 치아를 둘러싼 骨肉의 不相親을 통해서도 胃와 腎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sup>99)</sup>.

85) 任春榮 主編, 繆希雍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66.

8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162.

87)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p.559-560.

8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124.

89) 方正均, 『素問·水熱穴論』의 “腎者, 胃之關”에 대한 研究, 한국사학회지, 19(2), 2006, pp.19-27.

9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124.

9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49.

9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

9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6.

94) 辛相元, 金鍾鉉, 齒牙에 대한 두 관점의 통합적 이해,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9, 32(1), pp.117-131.

9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79-80.

9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51.

9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54-55.

9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3.

99) 辛相元, 金鍾鉉, 齒牙에 대한 두 관점의 통합적 이해, 大

## 6) 痰의 생성과 저장

痰의 생성과 저장 과정을 통해서도 胃, 腎의 관련성을 파악해볼 수 있는데, 陳念祖의 『時方歌括·礞石滾痰丸』에서 “經云, 受穀者濁, 受氣者清. 清陽走五臟, 濁陰歸六腑. 肺爲手太陽, 獨受諸氣之清, 而不受有形之濁, 則何可貯痰. 唯胃爲水穀之海, 萬物所歸, 稍失轉味之職, 則濕熱凝結爲痰. 依附胃中而不降, 當曰, 胃爲貯痰之器, 斯義也. 惟王隱公知之, 故制老痰之方, 不涉脾肺, 而責之胃腎.”<sup>100)</sup>이라고 하여 肺는 清氣를 받아들이고 濁氣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貯痰할 수가 없다고 보았고, 오직 胃가 水穀之海로 濕熱이 응결하여 痰이 형성되는 경우에 胃에 저장되며 그 책임은 胃와 腎에 있다고 하여 胃와 腎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曹仁伯은 『曹仁伯醫案論』에서 “營血本虧, 陰火又旺, 責在先天. 後天脾氣不健, 肝木乘之, 所進飲食生痰生飲, 貯之於胃, 尙可從吐而出, 相安於無事, 遲之又久, 走入膜外, 氣道不清, 脹自作焉. 脾爲生痰之源, 胃爲貯痰之器.”<sup>101)</sup>이라고 하여 營血이 본래 虧損되었고 陰火도 또한 왕성한 것은 先天의 책임이고, 後天의 脾氣가 건장하지 못하여 그 虛한 틈을 肝木이 乘한 경우에 胃로 들어간 음식물이 痰飲을 생하여 胃에 저장되었다가 吐出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痰 형성의 근본적인 책임이 腎에 있고, 후천적으로 脾氣가 튼튼하지 못한 것도 痰을 생성하는 데에 빌미를 제공하여 克하는 肝이 脾氣를 乘하여 痰飲을 형성한 후에 胃에서 痰을 저장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 이를 통해서도 胃와 腎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sup>102)</sup>.

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9. 32(1), pp.117-131.

100) 黃大里 校注. 時方歌括.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4. pp.58-59.

101) 道醫網 《曹仁伯醫案論》. [cited on October 20]: Available from: [http://www.360doc.com/content/19/0718/19/49670086\\_849615811.shtml](http://www.360doc.com/content/19/0718/19/49670086_849615811.shtml)

102) 윤기령, 백유상, 장우창, 정창현. “脾爲生痰之源, 肺爲貯痰之器.”의 의미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8. 31(3). pp.109-122. 尹은 수액대사의 기전을 살펴보면 脾와 腎이 주요한 生痰之源이 되며, 脾虛를 腎虛에 근본한다고 보아 腎爲生痰之本, 脾爲生痰之源으로 구분하였다.

## III. 考察

본 연구에서는 『靈樞·動輸』에서 手太陰, 足少陰, 足陽明의 脈만 홀로 뛰면서 쉬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肺, 胃, 腎의 상호 관계를 肺와 胃의 관계 및 胃와 腎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그림 1. 참조). 肺와 胃의 관계 부분을 『內經』 여러 편의 내용들과 함께 검토해 본 결과, 水穀이 우리 몸에 들어와 精微로운 氣가 胃를 거쳐 肺로 올라가야 毛脈合精의 과정을 통해 精으로 수렴되고, 肺로 올라가는 氣가 心脈을 관통하고 호흡을 일으키는 宗氣로 작용하여 생명 율동의 항상성을 유지하며, 胃의 水穀之精微가 太陰으로 가서 氣口를 통해 그 변화를 드러내고 胃氣에 기인해야 手太陰까지 氣가 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咳嗽가 肺뿐만이 아니라 胃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논하면서 濁氣가 胃에 모여 痰飲이 생기고 痰飲이 肺가 있는 胸部를 막아 발생하게 되는 병리적 관련성도 있었다.

胃와 腎의 관계 부분에서는 衝脈과 氣街의 관계, 『素問·痿論』의 ‘獨取陽明’ 관련 내용, 宗筋의 기능, 『素問·水熱穴論』의 “腎者, 胃之關” 관련 내용, 치아와 모발의 상태, 痰의 생성과 저장 등을 통하여 胃와 腎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足少陰腎經의 유주 노선이 衝脈과 겹치며 衝脈은 원래 氣街에서 일어나 足陽明胃經과도 연결되므로, 『靈樞·動輸』에서 足少陰腎經을 언급하면서 衝脈을 말한 의미는, 水穀을 받아들이는 後天의 陽明이 營氣, 衛氣, 宗氣 등의 생성을 통하여 전신에 氣를 퍼뜨리지만 先天의 少陰이 가진 元氣 또는 精氣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을 강조한 것이다. 陽明과 少陰 또는 胃와 腎의 이러한 관련성은 『素問·痿論』 獨取陽明의 설명에서 陽明, 衝脈, 宗筋, 氣街, 帶脈, 督脈 등의 관계를 기술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 밖에 痰飲이 생성되고 자리 잡는 과정과 치아의 특성과 관련 질환의 치료 방식 등에서 胃와 腎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素問·水熱穴論』에서 언급한 “腎者, 胃之關”의 내용도 腎의 氣化 작용이 胃에 영향을 미침을 말해주는 것이다.

『靈樞·動輸』에서 手太陰, 足陽明, 足少陰 등의 세 맥의 動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가장 중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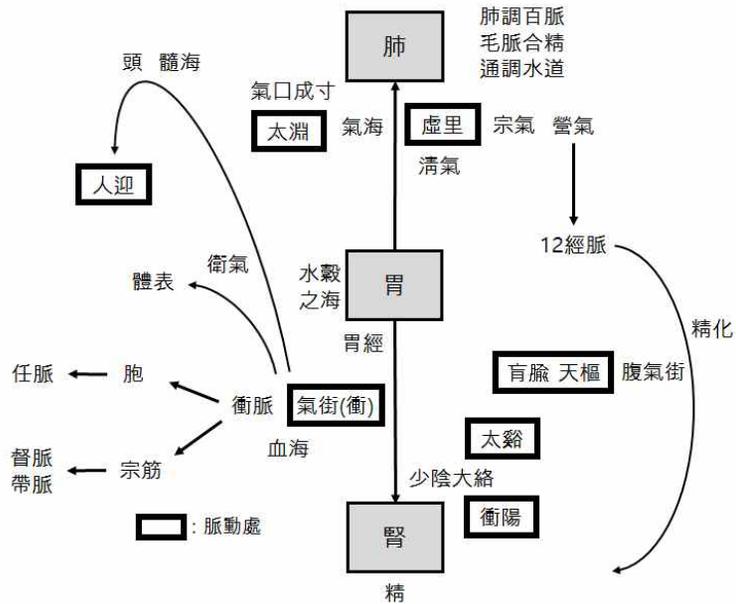


그림 1. 『靈樞·動輸』 肺胃腎 간의 氣 運行 네트워크

되는 것은 水穀을 받아들여 氣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전신으로 퍼뜨리는 足陽明의 胃라고 말할 수 있다. 楊上善은 『黃帝內經太素』에서 “十二經脈, 雖皆有動, 餘之九經, 動有休時, 唯此三經, 常動不息. 太陰常動, 已具前章, 故次問陽明常動之義. 故曰何因動也.”<sup>103)</sup>라고 하여, 陽明脈이 항상 뛰는 것을 중심으로 본 편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中焦의 脾胃 가운데 足太陰의 脾보다 足陽明의 胃를 중심으로 본 이유는 水穀을 받아들여 腐熟하는 胃의 기능이 모든 氣 轉化의 기초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 脾主運化의 개념이 정립된 것은 『黃帝內經』보다 후대이다<sup>104)</sup>. 이와 같이 水穀이 우리 몸에 들어와 필요한 氣, 血, 津液 등으로 轉化될 때에는 일단 氣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예를 들어 血도 氣의 속성을 가지게 되어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순환하므로 이를 營氣라 표현한 것이다. 『靈樞·營衛生會』에서 上中下 三焦 각각의 위치와 역할을 말한 것도 氣의 생성 및

순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서도 營氣와 衛氣를 설명하고 있다<sup>105)</sup>. 『靈樞·動輸』에서 胃에서 肺로 올라가는 清氣나 悍氣를 말한 것도 이와 유사하다. 胃에 머문 氣 가운데 맑은 것이 肺로 올라가며 상대적으로 탁한 氣는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데, 『靈樞·陰陽清濁』에서 胃와 肺의 清濁 관계를 설명하면서 清한 것이 肺로 흘러들어간다고 기술하고 있다<sup>106)</sup>. 또한 이와 같이 胃氣가 肺로 흘러드는 흐름은 진단학적으로 寸口脈을 통하여 五臟六腑의 상태를 파악하는 寸口脈法 발달의 배경이 되었다.

『靈樞·動輸』의 내용을 중심으로 胃에서부터 氣, 血, 津液 등이 생성되면서 전신으로 퍼져가는 과정을 종합해 보면, 우리 몸의 氣를 호흡과 맥동의 리듬에 따라 전신으로 퍼뜨리기 위하여 宗氣가 胃로부터

103) 錢超塵, 李雲.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146.

104) 金鍾鉉. 脾臟의 機能에 대한 通時的 考察. 慶熙大學校大學院. 2016. p.90.

10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119-120.

10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94. “黃帝曰, 夫陰清而陽濁, 濁者有清, 清者有濁, 清濁別之奈何. 岐伯曰, 氣之大別, 清者上注於肺, 濁者下走於胃, 胃之清氣, 上出于口, 肺之濁氣, 下注於經, 內積於海. 黃帝曰, 諸陽皆濁, 何陽濁甚乎. 岐伯曰, 手太陽獨受陽之濁, 手太陰獨受陰之清, 其清者上走空竅, 其濁者下行諸經, 諸陰皆清, 足太陰獨受其濁.”

터 생성되어 胸部로 올라가 쌓이고, 營氣도 水穀으로부터 생하여 中焦로부터 출하는데 역시 肺로 올라가서 宗氣의 힘에 의하여 전신을 순환한다. 衛氣의 경우는 上焦를 통해서 출하는 것은 맞으나, 『靈樞·動輸』에서는 胃로부터 肺로 흘러들어가는 氣 가운데 사나운 氣가 머리까지 올라간 후 다시 人迎으로 내려오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어서, 비록 衛氣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일부의 성질이 같은 氣가 흘러감을 알 수 있다.

胃로부터 足少陰으로 가는 氣의 흐름을 살펴보면, 足陽明經의 氣街를 중심으로 衝脈과 이어지고 衝脈은 다시 少陰의 大絡과 이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氣의 경로는 하복부 생식기 부위의 宗筋과 연결되고 옆으로는 帶脈, 뒤로는 督脈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胃로부터 足少陰으로 氣가 흘러가서 하는 역할은 衝脈, 帶脈, 督脈 등 奇經의 작용을 돕고, 足厥陰으로 연결되어 宗筋이 우리 몸의 관절과 筋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것 등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中焦의 胃에서 水穀을 받아들인 후에 그로부터 氣가 上焦로 올라가 전신으로 퍼지게 된다. 『靈樞·營衛生會』를 보면 衛氣와 營氣 모두 흉부로 올라와 전신을 운행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sup>107)</sup>. 그러나 胃氣가 下焦의 少陰까지 흘러들어가는 전반적인 과정은 胃經으로부터 衝脈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여러 奇經의 특수한 역할이나 宗筋의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氣血을 운행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下焦 少陰의 전반적인 기능을 돕게 된다. 아마도 이러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經脈을 순환하는 일반적인 經氣 이외에 胃經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氣의 작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12경맥의 순환을 통하

여 氣血이 운행하기보다는 별도의 경로를 통하여 胃氣가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靈樞·動輸』의 내용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頭, 胸, 腹, 脛 등에 위치한 四街의 의미인데, 胃로부터 시작하여 상하로 퍼져나가는 氣의 흐름에서 12경맥의 순환 이외에 장부와 경락을 연결하는 중요한 氣의 會合處가 바로 四街이며, 이에 관한 내용은 『靈樞·衛氣』에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sup>108)</sup>. 주가들은 四街 가운데 腹氣街와 脛氣街를 동맥처로 보았는데 腹氣街는 肓腧, 天樞 등에 해당하고 脛氣街는 氣衝 또는 太谿 등으로 보았다. 『靈樞·海論』에서도 水穀之海, 十二經之海[血海], 氣之海, 髓之海 등 四海를 설명하고 있는데<sup>109)</sup>, 이 가운데 氣衝이 水穀之海의 동맥처로 포함되어 腹部를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sup>110)</sup>.

12경맥 모두에 동맥처가 있으나 특히 『靈樞·動輸』에서 手太陰, 足陽明, 足少陰 세 경맥의 동맥처를 중시한 것은 이러한 氣街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몸의 上中下 三焦에서 先天과 後天을 아우르는 모든 氣의 생성과 순환이 생명의 근본적인 율동을 의미하는 세 경맥의 脈動으로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IV. 結論

『靈樞·動輸』에 나오는 肺, 胃, 腎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 주석과 『黃帝內經』의 여러 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靈樞·動輸』에 나오는 肺와 胃의 관계는, 水穀이

10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119-120. “黃帝曰, 願聞營衛之所行, 皆何道從來. 岐伯答曰, 營出於中焦, 衛出於下焦. 黃帝曰, 願聞三焦之所出. 岐伯答曰, 上焦出於胃上口, 並咽以上, 貫膈而布胸中, 走腋, 循太陰之分而行, 還至陽明, 上至舌, 下足陽明, 常與營俱行於陽二十五度, 行於陰亦二十五度, 一周也, 故五十度, 而復大會於手太陰矣. ……; 黃帝曰, 願聞中焦之所出. 岐伯答曰, 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於此, 故獨得行於經隧, 命曰營氣.”

10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6. “請言氣街, 胸氣有街, 腹氣有街, 頭氣有街, 脛氣有街. 故氣在頭者, 止之於腦, 氣在胸者, 止之膻與背腧, 氣在腹者, 止之背腧, 與衝脈於臍左右之動脈者, 氣在脛者, 止之於氣街, 與承山踝上以下. 取此者, 用毫鍼, 必先按而在, 久應於手, 乃刺而予之. 所治者, 頭痛眩仆, 腹痛中滿暴脹, 及有新積. 痛可移者, 易已也, 積不痛, 難已也.”

10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4.

110) 安鎮熹. 『靈樞·海論』의 四海 輸穴 선정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20. 33(2). p.107.

胃로 들어와 營氣, 宗氣, 衛氣 등의 精微로운 氣가 생성되어 肺로 올라가고 다시 12경맥을 통하여 온몸으로 퍼지며 肺의 수렴 과정을 거쳐서 精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때 心脈을 관통하고 호흡을 일으키는 宗氣는 생명의 율동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며, 營氣는 宗氣를 바탕으로 經脈을 순환하고, 衛氣의 특성을 가진 일부의 기는 머리 부위를 순환한다. 이와 같이 위에서 나온 氣는 太陰으로 가서 氣口脈을 형성하고 머리 부위를 순환한 후 人迎脈을 형성하여 진단의 요체를 이룬다. 병리학적으로는 濁氣가 위에 모여 痰飲이 생기고 痰飲이 다시 肺의 胸部에 모이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靈樞·動輸』에 나오는 胃와 腎의 관계는 衝脈과 氣街의 의미, 『素問·痿論』의 ‘獨取陽明’ 관련 내용, 宗筋의 기능, 『素問·水熱穴論』의 “腎者, 胃之關” 관련 내용, 치아와 모발의 상태, 痰의 생성과 저장 등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足少陰腎經의 유주 노선이 衝脈과 겹치며 衝脈은 원래 氣街에서 일어나 足陽明胃經과도 연결되므로, 水穀을 받아들이는 後天의 陽明이 營氣, 衛氣, 宗氣 등의 생성을 통하여 전신에 氣를 퍼뜨리는 동시에 先天의 少陰이 가진 元氣 또는 精氣와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3. 『靈樞·動輸』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臟腑는 水穀을 받아들여 氣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전신으로 퍼뜨리는 足陽明의 胃라고 말할 수 있다. 中焦의 脾胃 가운데 足太陰의 脾보다 足陽明의 胃를 중심으로 본 이유는 水穀을 받아들여 腐熟하는 胃의 기능이 모든 氣 轉化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水穀이 胃로 들어온 후 氣, 血, 津液 등으로 轉化될 때에 氣의 형태를 띠고 생성 순환하며, 이러한 양태는 『靈樞·營衛生會』에서 上中下三焦 각각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한 것과 유사하다.
4. 胃로부터 생성 순환하는 氣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흡과 맥동의 리듬에 따라 전신으로 퍼뜨리기 위하여 宗氣가 胃로부터 생성되어 胸部로 올라가 쌓이고, 營氣도 水穀으로부터 생하여

中焦로부터 출하는데 역시 肺로 올라가서 宗氣의 힘에 의하여 전신을 순환한다. 또한 衛氣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일부의 성질이 같은 氣가 머리 부위로 올라가 순환한다. 아래로는 先天의 元氣 또는 精氣와 관련된 足少陰으로 흘러들어가서 衝脈, 帶脈, 督脈 등 여러 奇經의 작용을 돕고, 足厥陰으로 연결되어 宗筋이 우리 몸의 관절과 筋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준다.

5. 『靈樞·動輸』의 내용 가운데 頭, 胸, 腹, 脛 등에 위치한 四街는 胃로부터 시작하여 상하로 퍼져나가는 氣의 흐름에서 12경맥의 순환 이외에 장부와 경락을 연결하는 중요한 氣의 會合處이며 특히 手太陰, 足陽明, 足少陰 세 經脈의 동맥처를 중시한 것은 이러한 氣街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몸의 上中下三焦에서 先天과 後天을 아우르는 모든 氣의 생성과 순환이 생명의 근본적인 율동을 의미하는 세 經脈의 脈動으로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Reference

1. 曲清文. 中醫五臟相關學說述要與《臨證指南醫案》臟腑辨證用藥的相關性研究. 廣州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2. 곽범희, 윤종화. 人迎氣口脈診法과 衝脈의 關係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9. 32(4).  
<https://doi.org/10.14369/jkmc.2019.32.4.047>
3. 郭靄春.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4. 金鍾鉉. 脾臟의 機能에 대한 通時的 考察. 慶熙大學校大學院. 2016.
5. 金鍾鉉, 金度勳. 宗筋의 部位와 機能에 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7. 30(4).  
<https://doi.org/10.14369/jkmc.2017.30.4.019>
6. 道醫網 《曹仁伯醫案論》. [cited on October 20]: Available from:  
[http://www.360doc.com/content/19/07/18/19/49670086\\_849615811.shtml](http://www.360doc.com/content/19/07/18/19/49670086_849615811.shtml)

7. 丹波元簡. 靈樞識(津修堂醫書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8. 譚方. 聚於胃關於肺理論研究. 北京中醫藥大學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1.
9. 唐容川 著.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0. 柳長華 主編. 李時珍醫學全書 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3.
11. 柳太植, 琴桐樹. 『素問·五臟別論』에 對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4. 8.
12.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7.
13. 馬蒔. 黃帝內經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4.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
15. 方正均. 『素問·水熱穴論』의 “腎者, 胃之關”에 對한 研究. 韓國의사학회지. 19(2). 2006.
16. 白裕相, 金鍾鉉. 『素問·欬論』의 ‘聚於胃, 關於肺’ 條文에 對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7. 30(3).  
<https://doi.org/10.14369/jkmc.2017.30.3.167>
17. 白裕相. 經絡의 循環과 精氣 生成의 關係에 對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18. 商務印書館 編. 局方發揮(欽定四庫全書 14子部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9. 商務印書館 編. 儒門事親(欽定四庫全書 13子部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0. 葉天士 著. 臨證指南醫案.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73.
21. 宋志青, 琴桐樹, 嚴東明. 宗氣와 神氣의 關係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6).
22. 辛相元, 金鍾鉉. 齒牙에 對한 兩 觀點의 統合적 이해.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9. 32(1).  
<https://doi.org/10.14369/jkmc.2019.32.1.17>
23. 辛相元. 宗氣의 의미에 對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9. 32(3).  
<https://doi.org/10.14369/jkmc.2019.32.3.147>
24. 安鎮熹. 『靈樞·海論』의 四海 輸穴 선정에 對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20. 33(2).  
<https://doi.org/10.14369/jkmc.2020.33.2.091>
25. 安鎮熹, 徐準皓. 『素問·痿論』의 獨取陽明에 對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9. 32(4).  
<https://doi.org/10.14369/jkmc.2019.32.4.091>
26.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27. 汪昂 著, 金容辰 譯註. 素問靈樞類纂約註. 서울. 世昌出版社. 2013.
28. 윤기령, 백유상, 장우창, 정창현. “脾爲生痰之源, 肺爲貯痰之器”의 의미에 對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8. 31(3).  
<https://doi.org/10.14369/jkmc.2018.31.3.109>
29. 任春榮 主編. 繆希雍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0.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31. 張介賓. 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06.
32. 張大源, 李南九, 蔡禹錫. 『靈樞·動輸』에 對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9. 12(2).
33.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34. 張志聰. 黃帝內經集注. 浙江. 浙江古籍出版社. 2002.
35. 張效霞. 臟腑功能辨析.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36.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編. 難經. 서울. 法仁文化社.
37. 錢超塵, 李雲.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38. 陳堅雄. 中醫五臟相關學說의 理論研究. 廣州

- 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39. 陣士鐸. 正校石室秘錄. 서울. 杏林出版. 1987.
40. 陳熠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喻嘉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41. 陳旭青, 嚴道南. 內經此皆聚於胃關於肺探討. 四川中醫. 2015. 33(11).
4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44. 黃元御. 靈樞懸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8.